



강진 김영일



고흥 한운섭



곡성 김광휘



구례 박진호



담양 박종영



무안 이기성



보성 안구일



순천/광양 김승호



여수 김석철

# '봄에 즐긴 우주 여행' 고흥우주항공축제 성료

### 무더위 피해 봄철 개최...방문객 늘고 체류시간 길어져



고흥군 나로우주과학관 일원에서 개최한 '제12회 고흥우주항공축제'가 테마 프로그램 BigBang 4에 대한 높은 호응 속에 마무리 되었다.

이번 축제는 지난해까지 7월말에서 8월초까지 무더위 기간에 개최해왔던 것을 방문객 편의를 위해 봄철로 시기를 변경하고 3D 프린팅, 코딩 프로그램 체험 등 교육효과 높은 창의적 신규 과학 프로그램과 특히 드론 장애물 레이싱 대회, 드론 낚시·농구 등 항공콘텐츠인 드론 특성화 경기 및 체험을 대폭 보강하여 명실상부한 우주항공축제의 정

체성을 강화하였다.

핵심 테마 프로그램인 나로호 발사 현장체험은 인터넷 사전예약이 매진되는 등 올해에도 꾸준한 인기를 재확인하며 축제의 대표 프로그램임을 입증하였다.

그리고, 나로우주센터 우주과학관과 국립청소년 우주센터 체험은 88종의 특성화된 우주과학 체험과 움직이는 전문대의 광주국립과학관 등 타기관 협업을 통한, 체험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들에게 호평을 받았다.

아울러 재미와 일탈성을 갖춘 마술쇼, 가상 주행체험, 우주만화캐릭터 포토존, 이동형 캐릭터 퍼포먼스, 공군 군악대 공연 등 매력있는 볼거리를 제공하여 관광객 만족도를 크게 높였다.

특히, 올해는 연휴기간과 체험하기 좋은 5월 날씨로 어린이와 학생을 동반한 가족단위 방문객이 과학 체험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여 축제장 체류시간이 늘어나고 체험 프로그램 만족도를 높이는데 일조하였다.

이러한 개선된 여건 등으로 3일간 방문객이 41,000여명으로 지난해 일일평균 대비 16% 늘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특히 축제 마지막 날인 5일에는 셔틀버스 승차대기 행렬이 100m, 대기시간은 40분 이상 소요되는 등 과거 유례가 없는 상황이 나타나기도 하였으며, 스태프 엘리자 운영을 위해 제작한 우주여행이 조기 매진되어 추가 제작하였는가 하면, 일부 체험재료는 전년 대비 1.5배 준비에도 불구하고 이날 소진되는 등 방문객수가 증가하였음을 입증하였다.

고흥=한운섭 기자

## 제8회 영광찰보리문화축제 성료



영광군 군남면은 지내들 옹기돌 탐공원 일대에서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이틀간 제8회 영광찰보리문화축제를 개최, 2만 8천여 명의 주민과 관광객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번 축제를 성황리에 마쳤다.

영광찰보리문화축제는 우리나라 찰보리쌀 최대 재배단지로서 영광

보리산업특구 지정을 기념하기 위하여 시작한 축제로 그동안 다채로운 공연과 체험프로그램으로 방문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군남면 주민들이 마음과 뜻을 모아 준비해오고 있는 지역대표축제다.

이번 축제는 '함께보리! 즐겨보리! 웃어보리!'라는 주제로 지역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며 마음껏 웃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구성되었다. 특히 이번축제는 겨울동안 추위를 이겨내고 결실을 맺는 봄의 상징으로써 찰보리를 기념하고 축제 분위기를 통해 여름 더위를 이겨낼 힘을 얻기 위해 마련되었고 3.1운동 및 찰보리쌀 최대 재배단지로서 영광

기념하여 조국광복을 위해 헌신하신 애국지사를 애도하는 시간도 가졌다.

축제가 펼쳐진 군남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보리산업특구로 지정된 지역답게 영광찰보리홍보전시관을 운영하였고 주민과 관광객들은 대형찰보리비빔밥을 점심으로 시식하면서 찰보리비빔밥을 맛보았다.

영광찰보리문화축제 추진위원장(박흥영)은 "주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했고 이 축제가 많은 분들께 아늑한 5월의 추억이 되길 바란다."며 "축제를 찾아주시는 관광객에게 감사하고 행사를 위해 물심양면으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영광=서희권 기자

## 설렘화순 버스투어, 폭발적인 인기 이어가

### 플라 타는 재미와 관광화순 매력에 호응 좋아...예약률 70%

화순군은 지난 3월 23일부터 운행하기 시작한 '설렘화순 버스투어'가 5일 현재 예약률 70%를 보이며 폭발적인 인기를 이어가고 있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지난 4월과 5월 어린이날 연휴에는 예약률 98%를 기록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화순을 찾은 관광객들은 "화순적벽과 화순의 곳곳을 둘러보고 아름다운 풍광에 잔뜩 취해간다"며 "정말 멋진 여행을 하고 많은 추억을 담아 간다"며 호평을 쏟아냈다.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화순적벽

을 중심으로 화순의 대표적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코스를 운영한다.

운주시, 고인돌 유적지, 임대정 원림, 연동리 숲길 등 화순 지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지와 함께 화순적벽을 둘러볼 수 있어 관광객에게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군 관계자는 "올해 새롭게 선보인 관광 상품, 투어 코스가 화순의 대표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동시에 관광객의 선택 폭을 넓혀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같다"며 "관광객이 불편 없이 우리 화순의 역사 문화와 수려한 풍광 등을 즐길 수

있도록 버스투어를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화순적벽과 인근 관광지를 연계한 동부권과 서부권 코스로 나눠 운행한다. 여기에 화순적벽만 둘러보는 설렘화순 적벽투어도 운영하고 예약 없이 방문한 관광객을 위해 현장 신청을 받아 운행하는 화순적벽 셔틀투어도 있다.

설렘화순 버스투어는 매주 수·토·일요일 3회 운행하고 있으며, 인터넷 예약제외로 운영된다. 투어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투어 희망일 2주 전 사전에 예약해야 한다.

화순=박순철 기자

## 함평군, 주민참여 나무심기 운동 전개

함평군은 최근 학교면 문화마을 경관 숲 조성사업에서 주민참여 나무심기 행사를 개최했다고 8일 밝혔다.

예코 푸른숲 전남 만들기 주민참여 숲 조성사업은 민간 주도의 나무 식재 및 사후관리 사업으로 생활권 주변 숲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날 사업 주민 참여단체인 문화마을 자치회 회원과 숲속의 전남협의회 회원 30여 명은 학교면 월산리 일원에 산딸나무 외 14종 55주를 식재했다.

특히 학교문화마을 자치회의 경우, 군과 조만간 '숲 돌보미 협약'을 체결하고 제초작업, 비료주기, 물주기 등 숲 돌보미 활동을 꾸준히 전개할 예정이다.

함평=김광춘 기자

## 광양용강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 오는 7월까지 운영 예정

광양용강도서관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고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2019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1차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길 위의 인문학' 사업은 도서관이 중심이 돼 재미있고 유익한 인문학 프로그램을 운영을 통해 인문학 대중화와 독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다.

용강도서관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한 '공감과 배려'를 키워드로 '함께하는 공동체, 공감과 배려로 다시 한 걸음'이라는 프로그램을 운영해 가족간 공감과

소통, 문화적 감수성에 대한 강연과 탐방이 진행된다.

용강도서관은 1차 프로그램 '생산적 세대 공감', 2차 프로그램 '가족 소통과 공감', 3차 프로그램 '타문화에 대한 감수성과 문화코드 이해'라는 제목으로 총 세 차례에 걸쳐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을 5월부터 7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1차 프로그램은 '영화로 살펴보는 생산적 세대 공감'이라는 주제로 10일 저녁 7시 마로극장에서의 첫 강연을 시작으로, 2차 강연은 18일 오전 10시 30분 경향대 한귀은 교수의 진행하에 운영된다.

광양=김승호 기자

## 순천시, 도시재생 실행 참여자 양성 '새싹 33명' 발굴



순천시는 주민이 주도하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저전동 일반근린형)을 위해 지난 4월 11일부터 4월 30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도시재생 새싹학교를 진행했다.

도시재생 새싹학교는 도시재생 사업 참여를 원하는 주민들을 대

으로 도시재생 초급 이론교육과 사례 현장탐방을 통해 주민역량강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중점을 두는 '도시재생 주민 새싹 33명'을 배출했다.

이번 교육은 단순한 이론교육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순천시 도시재생 뉴딜사업(일반근린형)의 방향

성 이해와 지역 탐방을 통한 마을 자원조사, 탐방 발굴 주민공동체사업 대한 토론회를 거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도시재생 실행에 중점을 두었다.

교육에 참여한 주민들은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모르고 지냈던 지역주민들과 소통하고 마을에 중요성을 알게 되는 좋은 기회가 되었으며 앞으로도 마을활동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열정을 보였다.

순천시 관계자는 "주민들의 도시재생에 대한 관심과 열정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 주민들에 의해 발굴된 공동체사업 아이템들이 실질적으로 실행될 수 있도록 이끈 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순천=김승호 기자

www.jepa.kr

### 전라남도비정규직노동센터를 운영했던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전라남도중소기업진흥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새롭게 도약합니다!

중소기업진흥원은 중소기업 성장지원으로 행복공동체 구현을 목표로 기업들의 매출증대가 고용창출을 낳는 선순환 경영환경 조성에 기여하는 전라남도 출연기관입니다.

주소 |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전남도청 옆)



- 무료법률상담**
  - 무당해고·임금체불 등 비정규직 근로자 노동 상담
  - 중대 사안 관계기관 권징
  - 구제신청 지원 및 의견제출(노동사·자문변호사)
  - 유관기관 연계를 통한 상담 무소 운영
-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지원**
  - 근로조건 열악사업장 근로자 상담 및 법률지원
  - 감시단속적 근로자 근로조건 및 근무환경 개선 활동
  - 일용직 근로자 보호를 위한 임금체불 권징 상담 및 지원
- 최저임금·비정규직 차별신고센터 운영**
  - 중소기업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 위반사례 접수
  - 비정규직 근로자 상담을 통해 차별적 요소 확인 및 시장요청, 행정기관 법률구제 신청을 위한 서면작성 지원 및 법률 자문
- 노동법률교육**
  - 근로자 및 사용자 대상 노동법 및 노사관계관련 교육 실시
  -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개선 및 적법한 인사관리방안 안내